

여성 자영업자의 정체성 구현과 상호 명명 방식*

배아영**

| 국문초록 |

이 글은 근현대 호남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한 여성들의 생애구술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의 자기인식과 직업 정체성을 살피고, 그것이 이들의 상호 명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다. 여성 자영업의 경우 자신 스스로가 일의 중심이기보다 남편 또는 자녀를 중심에 두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직업 정체성을 살피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다른 구술자들은 상호에 자신 또는 자녀의 이름을 붙이거나, 가게 또는 일에 대한 가치를 담기도 하고, 이전 주인이 쓰던 상호를 물려 쓰기도 했다. 각 구술자의 상호 명명 방식은 구술자가 자신의 직업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이는 나아가 창업 자본, 사전 직업 훈련 유무(기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 글은 우리 사회 주변부에서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영위해 온 여성 자영업자의 생애 구술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주요어: 주변부, 여성 자영업자, 직업 정체성, 상호, 구술생애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구술자료 아카이브구축 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9-OHA-1230003).

이 글은 2023년 6월 23일 진행된 (사)무형문화연구원·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주변부, 지역, 여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한 것이다. 토론자 최은영 선생님(한국예술종합학교)의 토론문과 심사자 세 분의 심사 의견에 힘입어 완성되었음을 밝혀둔다.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abuuung@jbnu.ac.kr)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여성의 이름
3. 여성 자영업자의 가게 이름 짓기
 - 1) B: 자신의 이름+업종
 - 2) 구술자 C: 자녀의 이름
 - 3) 구술자 A, D: 가치/의미 부여
 - 4) 구술자 E: 이전 상호 승계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근현대 호남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한 여성들의 구술 자료를 소개하고, 이들의 자기인식과 직업 정체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자영업자는 영세민에서 최고 부유층까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의 선택과 지속, 사멸에서 남성 자영업자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특히 여성자영업자는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버는 집단으로 정의되며, 임금근로자보다 자율적이고 비교적 고소득이라는 인식 속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이 미비했다.¹⁾

본 연구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 한국 주변부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 아래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노동자들을 면담하는 구술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이 사업의 1단계, 즉 호남지역 조사를 마쳤으며, 1단계 1년차에는 산업체 노동자, 2년차에는 자영업자, 3년차에는 맨손 노동 종사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총 48명의 구술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었다.

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2002 참조.

이 글에서는 여성 자영업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상호(商號)'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 이들의 구술 생애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상호는 한 기업 혹은 가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 개념으로서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와 속성을 드러내는 일차적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상호는 그 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욕망을 구체화하며, 이러한 상호들의 총체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여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기에도 한다. 따라서 업주는 몇 글자 안 되는 상호에 업종의 특성을 명시하는 동시에 업주인 자기의 희망 혹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한다.²⁾

구술자는 경험과 인식의 주체이자 서사적 주체이다. 유독 '무급가족종사자'가 많다는 여성 자영업자의 특이점 속에서 이들의 직업의식을 살피는 일은, 구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특히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구술은 수집·공개된 사례가 거의 없고, 그나마 진행된 구술 자료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여성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근현대 한국 주변부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의 구술 자료 수집은 고소득·전문직이 아닌 '주변부'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필자는 자영업에 종사한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서술하는 정체성이 가게 이름을 지은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영업자의 상호 명명 방식을 분류하거나 통계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상호'라는 지표를 통해 여성의 자기 인식과 표현을 살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과 이름에 대한 긴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사회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주체로서 경제 활동을 영위해 온 여성 자영업자의 생애 구술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김재준, 김용현, 「상호와 소기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강남구와 종로구의 점포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6(1), 2009, 113~135쪽 참조.

2. 여전히 호명되지 않는 여성의 이름

산업화와 함께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생활은 흔히 여성의 이름찾기로 여겨진다. 곧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여성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여성들에게서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성 자영업자의 상호 명명 방식을 논의하기에 앞서 여기에서는 근현대 여성의 경제 활동 속에서 여성과 이름을 살핌으로써 여성에게 있어 ‘이름’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름이란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임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아이덴티티의 상징이다. 태어나서 주위로부터 특정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 그 이름은 숙명적으로 당사자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이름이 인종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계급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시 기능까지 갖춘 점을 고려하면, 이름은 당사자의 인격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다.³⁾ 그런 의미에서 나아가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는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 또한 역할 변화의 여지가 수반되기도 한다.

여성에게 이름이 생긴 것은 불과 백여 년 사이의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시대 여성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 황진이와 같은 기명이거나, 또는 허난설헌, 심사임당, 김삼의당과 같은 당호, 택호이며,⁴⁾ 여성은 아예 구

3)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부여하고 싶은 이미지, 밝은 미래에 대한 기원과 희망이 담겨있다. 일본 속담에는 ‘이름은 본질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름이 사물의 진정한 모습, 본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단테의 시문집 『신생』 8장에 나오는 ‘이름은 사물의 궁극이다’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또한 중국에서는 “자식에게 천금을 주는 것은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한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 못하다.(賜子千金, 不如教子一藝, 教子一藝, 不如賜子好名)”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4) 이에 대해서는 이월영, 「침묵과 부재: 여성과 언어의 악인연」, 『국어문학』 34, 1999, 347쪽 참조. “여성명명은 정숙한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규정한 명명과 성적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농염하게 풍기는 명명으로 분류되었다. 전자는 아내에게, 후자는 유락녀에게

방, 내방, 내실로까지 명명되었다. 이는 여성의 주거공간이 여성에 대한 명명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명명은 여성의 활동영역에 대한 범주제한인 동시에 규방의 내포적인 의미에서 연유한 순종, 단함, 정적, 내밀, 수동성 등으로 여성 존재의 특성을 규정한 것이다.⁵⁾

이와 같은 ‘여성과 이름의 악인연’은 근대로 넘어오면서도 지속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여성, 모던 걸을 중심으로 젠더 담론이 등장했고, 해방공간에서는 양공주, 1950년대 중반 이후 자유부인, 전후파 여성, 아프레 걸, 전쟁미망인, 1960년대 치맛바람, 전업주부, 1970년대 복부인, 새마을 부녀(회), 호스테스, 공순이 등 여성을 호명하는 언어들 이 등장했다. 주창윤에 따르면, 1920년대 이후부터 젠더 호명은 여성에 집중되어왔다. 이러한 여성호명은 여성성을 특정 경계(도덕적 타락, 관음의 대상) 안으로 위치시키는 방식이며, 여성에 대한 타자화와 경계짓기이다.⁶⁾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근대 시기의 여성 호명 또한 전통시대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전후 산업화와 함께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생활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호명되었는가. 우리가 만난 당시 산업체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에게서는 호명에 대한 경험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여공에 대한 호칭은 호명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장 내 여공들끼리의 호칭을 문자 ○○경, ○○회는 공통적으로 “야!”라고 불렀다고 했다. 일반 여공들끼리는 대체로 직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야!”, 나이에 따라 “언니”, 또는 업무에 따라 편의상 “누구 시다”, “누구 보조”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불렀다.⁷⁾

각각 구분되어 명명되었으니 이는 이원화된 이기주의적인 남성 중심적 여성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5) 이월영. 같은 논문, 326쪽.

6) 주창윤.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 299~314쪽 참조.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순이”라고 흔히 불렀다.

다만 생소한 것은 ○○희에게 호칭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아가씨”를 떠올린 것이다.⁸⁾ 서로를 아가씨라고 부르다가 서로 좀 알게 되면 “○희!”, “○미!” 등 호격조사를 댄 이름만을 부르기도 했으나, 나이 차이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언니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다. ○○희가 떠올린 이러한 호칭들은 호명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당시 취업 연령이 되지 않은 10대 초중반의 소녀들은 취업을 위해 나이가 있는 여성의 이름을 빌려오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공장 내에서 밝힌 이름과 나이가 다른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는 암묵적인 이해 또는 배려가 있었던 것이다. ○○희는 친구의 본명을 알게 된 후에도 호칭을 고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도 공장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에피소드를 말하기도 했다.⁹⁾

7) 거기에서 일하시는 언니들은 그냥 ‘누구야!’ ‘누구야!’ ‘뭘 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뭘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관리자는 그 뭐냐면 이렇게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름, 그냥 뭐 거기에 이제 ‘백양’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고참 관리자가 정말 나이 많은 언니였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우리한테 그냥 ‘뭘야, 뭘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대체로 언니들은. 근데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관리자들한테 제가 제 이름을 불러본 경험은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왜그냐면 제가 뭐가 말 짓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인자 보통은 어, 뭐, 저보다 더 언니들한테는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못 들었던 거 같아요. 성에다 양자를 붙이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우리같이 지금 뭐 누구 씨 누구 씨 이렇게 부른 적은 없었던 거 같고. 이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름 가지고 막 뭐 저게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인지했거나 뭐 어려지는 저는 안 했던, 못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인자 그때 당시 ‘백양’에 다녔을 때, 팔십(80)년대 때는 주로 이제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보통 인자 ‘공순이’, ‘공돌이’ 이런 게 더 많았죠. 외부적으로 부를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크게 그게 나한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야” 뭐 이렇게 불렀던 거 같애. 왜 그냐면 그 언니들이 저한테, 저를 이름 부르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야, 뭐 누구 보조!”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하는데, 이렇게는 했는데, 저한테 직접 대고 제 이름을 부르거나 막 어려지 않았던 거 같아요.(○○경 구술, 3차 인터뷰, 2019. 11. 14.)

8) 비슷한 연배들끼리는 아가씨라고 했던 거 같아요. ‘아가씨’라고 하고, 이제 좀 알면 ‘누구’, 예를 들어서 “○희”, “○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다 야로 했죠. 야, 아니면 “야”, 이름 안 붙이고 “야”(중략)(○○희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19.)

한편 이들에게 공장 관리자급의 직원들(공장 내 남성)이 여성 노동자들을 부르던 호칭을 묻자, “~양”, “누구 씨”, “미스 박”, “미스 김”과 같은 호칭으로 조장언니를 부르던 기억을 찾았을 뿐, 두 사람 모두 관리자가 자신을 부르던 호칭을 찾지 못했다. 남성 관리자에게 불린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은 그에 대해 ‘뭔가 말짓을 안 해서’ 부를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추측했고, ○○희는 그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최고급 관리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¹⁰⁾ ○○경과 ○○희의 회상에서 당시 이들이 문제가 없으면 불릴 필요가 없는 존재, 즉 공장 내 기계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한계지어지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사무직의 경우, 1988년 민주항쟁 이후 이런 환경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듯 하다.¹¹⁾ 당시 “박 양아”라고 불리던 박○○은 어딘가에 교육을 다녀오신 기획부장님으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 ‘직원들끼리의 호칭을 언니에서 선배로 바꿀 것, 전화 받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것, 서로 반말하지 말 것’이 지침의 주요 내용이었다. 기획부장님은 이 내용을 코팅하여 각 부서에 내려보내고 사무실에 비치하게 한다. 당시에 대해 박○○은 직장 내 가깝게 지내던 ‘조양언니’를 갑자기 선배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9) 어, 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이들이 많이 속였어요. 왜냐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들어오니까 남의 가명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친구가 여럿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어썩해, 본명을 부르는 게. 근데, 그래서 나이를 속이는 경우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동갑이든, 그래서 쉽게 언니라는 호칭들은 잘 안 썼던 거 같아요. (○○희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19.)

10) 조장한테는 “미스 박”, “미스 김”, 뭐 이런 식으로 불렀고, 차장한테도 “미스터 박” 이렇게 불렀던 거 같아요. (면담자: 그 밑에 인제 공원들,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를 일이 없었겠네요. 중간에서...) 그쵸. 자기들은 (조장, 차장한테) 지지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니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최고급 관리자인걸요. (○○희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19.)

11) 이 내용은 ○○현의 구술에서 들을 수 있었다. ○○현은 행남자기 공장에 여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결혼 후 퇴사. 이후 행남사 사무직으로 재입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싫었다거나, ‘자기 이름을 댄다는 것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혼이 나기도 한 경험을 말하면서도 “박○○ 씨”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기억한다. “김 양”, “박 양” 하던 호칭이 “박○○ 씨”로 바뀌면서 “이랬냐”, “저랬냐” 하던 남성 관리자들의 말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¹²⁾ 이처럼 직장 내 호칭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여성 존재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개선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농업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름 불리지 않는 여성들이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성 농민, 이주 여성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¹³⁾ 공장노동자를 거쳐 여성 농민 운동을 하고 있는 구술자 김○○는 농촌 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성 농민의 이름을 찾는 일을 꼽았다. 농촌 여성들은 남성(남편)과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통장도 없는 경우가 많다. 여성 농민이 자신의 통장을 만들고, 자신을 남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데에는 최근까지도 남편의 승낙이 필요했다. 현재는 미약하나마 의식적, 제도적인

12) 아. 처음에, 처음에 직장을 처음에 다녔을 때, “김 양아.” “박 양아.” 하다가 저희 그 때 기획부장님이 어딘가에 교육을 다녀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호칭도, 호칭도 이렇게 ‘언니’를 하지 말고 ‘선배’, 선배를 하라고 그러고 전화를 받을 때도 “네. 뭐, 뭐 관리과입니다.” 하지 말고 관등성명을 대라는 거예요. “관리과 박○○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리과 박○○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서로 간에 반말 하지 말고 아예 그 매뉴얼을 코팅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내려 보낸 거예요. 그냥 회사에 해갖고 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전에는 저희도 김 양이나 박 양이나 자기 이름을 댄다는 것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요 한 번은 전화를 받는데, 제가 그냥 “네. 관리과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혼난 적 있어요. “왜 매뉴얼대로 안 하냐?”고.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가 티비도 그렇고. 왜 이상하게 김 양, 박 양 하면서 ‘이랬냐?’ ‘저랬냐?’ 이랬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적, 사석에서는 좀 하지만 그래도 야. “박○○ 씨” 이러니까 괜찮더라고요. “박○○ 씨” 이렇게 하고. 근데 물론 말 안 들은 사람도 있죠. “박 양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죠. 저희도 왕언니한테도 “언니” 이렇게 안 하고 “조양 언니” 이랬거든요. “조양 언니” 이랬는데, 이름을 불러준 것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준 건 너무. ‘나도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는구나.’ (박○○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24)

13) 이에 대해서는 김○○의 4차 구술(2020. 1. 15.)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선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보수적이다. 일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몽 운동과 행정 개선을 통해 여성 농민들은 하나둘 통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여성이 만든 통장은 남편이 팔기에 ‘쪽팔리는’ 상품, 좀 처지는 비품을 판매하는 데 쓰이는 일이 허다하다. 사회의 한쪽에서 여전히 여성의 이름은 남성 사회의 논리에 의해 필요 없는 이름으로 취급되거나, 하품을 처리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김○○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여성 농민 운동, 계몽운동의 핵심은 “A품에 내 이름을 당당히 기재하자”는 것이다.¹⁴⁾

지금까지 전통시대에서 뿐 아니라 구술자들의 경제 활동 속에서도 여성의 이름은 주로 부재했음을 보았다. 이는 비단 과거만의 일이 아니다. 구술 작업을 통해 남성에 의해, 혹은 여성 스스로에 의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호명되지 않는 여성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여성 활동에 대한 편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 여성을 호명하는 이름들을 살펴본 것은 다음 장의 논의를 위해서이다.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것은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권

14) 여성농민도 여성농민 앞으로 통장 하나 만들고, 통장도 자기 이름으로 없었어요. 통장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받은 거의 여성들 몫이니까 내 통장에 받자. 지금은 여성 농민들한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여성농민들이 여성농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면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같이 농사지으니까, 같이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모든 ‘직불제’나 아니면 ‘농지 원부’나 이런 게 남자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동경영주, ‘우리도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초창기에 어떻게 했다면, 남편이 승낙을 해줘야 거기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성 농민들이 그렇게 꾸준히 대화하면서 정책 토론 하면서 요구했었는데, 겨우 된 게 남편이, 남편들이 동의해줘야. 근데 아시다시피 농촌이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예요. 그거 동의해주는 남편 별로 없어요. 필요 없다고 하고, 여성 농민 앞으로 통장도 없고. 하다못해 통장을 만들어서 좀 하우스 농가나 뭐 위에 작물을 계속, 그 저기 뭐라고 해, 약판이라고 하죠. 수매 공판장, 공판장에 낼 때 좋은 에이(A)품 상품은 남편 앞으로 내요. 근데 좀 처지고 비품은 여성 농민 이름으로 내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추 같은 것도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제발 그러지 말자.’고 여성 농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몽운동이 그거예요. 에이(A)품에 내 이름 당당히 기재하자. 이런 건데, 개선할 거 참 많죠.(김○○ 구술, 5차 인터뷰, 2020. 2. 26.)

력 행위이다. 역사 속에서 여성은 주로 명명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당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러한 여성들이 자신의 가게에 이름을 짓고 부르는 행위는 여성이 자신의 일을 인식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사회 곳곳의 여성 주체를 발견하고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 여성 자영업자의 가게 이름 짓기

본 장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여성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자영업자의 직업의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들의 구술 속 자취에서 ‘상호’는 구술자의 자기 인식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본론에 앞서 이 글에서의 ‘자영업자’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는 영세민에서 최고 부유층까지를 포함하고, 직업적으로는 날뽕팔이부터 의사, 변호사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자영업만의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려할 때, 이 글에서 다룰 자영업자는 사업자 명의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일제 노동 시간 이상을 일하며, 점포를 가진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 글은 자영업에 종사한 6인의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이때 수집한 문헌 자료, 사진, 영상 자료를 텍스트로 삼아 작성한 것이다. 여섯 명의 구술자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구술자 개요(면담일 순)

구술자명 (출생년도)	노동 경험	주요 이력
A(1964~)	공장 사무직, 미용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 -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1982년 행남사 입사 - 1990년 미용사 자격증 취득 - 1995년 미용실 개업 - 현. ○○ 미용실 운영
B(1946~)	가정교사, 한복침구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이리(익산)출생 - ○○여중, ○○여고 졸업 -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 1968~78년 ○○중학교, ○○여고 가정교사 재직 - 1978년~ 현대침구, 이○○현대한복침구 운영 - 현. 이○○한복침구 운영
C(1958~)	공장 노동, 행사, 분식점·문구점·화장 품가게 등 운영, 식당 찬모, 방문판매, 보험설계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출생 - 1970년 초등학교 졸업 - 1972~73년 서울 상경 후 아기를 돌봄 - 1974~75년 방림방직 취직 - 1978년 방림고등공민학교(방림방직 부설) 졸업 - 1986년 채소 행사, 분식점 운영 - 1988~89년 문구점 운영 - 1990년 적십자 혈액원 수련장 식당 근무 - 1996~96년 화장품 코너 운영 - 1998~99년 방문 판매 - 2000~2007년 보험설계사 - 현. 공사 현장, 웨딩홀 식당, 골프장 식당 등 일용직 근무
D(1964~)	관광버스 안내원, 미용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출생 - 1983년 무주 ○○중학교 졸업 - 1987년 ○○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 (경북 구미 한일합섬 부설 고등학교) - 1987년 관광버스 안내원 근무 - 1988년 전주 모래내 예식장 미용실 근무 - 1990년 ○○ 미용실 개업 - 현. 전라북도 전주시 '○○ 미용실' 원장
E(1960~)	공장 노동, 슈퍼·노래방 운영, 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서동 출생 - 광주 ○○여자중학교 졸업 - 1978~81년 무등양말 근무 - 1984~87년 화순슈퍼 운영 - 1988년 무등양말 재입사, 근무 - 1989~2003년 돼지슈퍼 운영 - 2003~2007년 노래방 운영 - 2007년 간병인 자격증 취득 - 현. 간병인(잡시 휴직 중)

이들 여성 자영업자는 대부분 공장 등의 임금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 이후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업종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관심사보다는 살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고려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또 저녁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일과 살림을 병행할 수 있는 거주 시설이 있는지 여부가 업종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1) B: 자신의 이름+업종

1946년생인 구술자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전주 지역의 명문여중·고를 졸업한 뒤, 한양대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한다.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십여 년간 가정교사로 재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78년 이불가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한복/침구점을 운영 중이다.

구술자가 교직생활을 그만둔 것은 자녀 양육의 문제 때문이다. 당시 대다수의 여성이 그랬듯이 구술자 또한 결혼 후 퇴직을 고려했으나, ‘학력이 아깝다’는 어머니의 만류에 따라 퇴직을 유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은 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만둬야 할 거 같아서,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퇴직을 고려하던 시점에, ‘예쁜 이불’을 보게 되고 퇴직과 이불가게 인수를 결정한다. 교직생활보다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을 들여다 볼 자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B구술자가 가게에서 본 ‘인사동 이불’은 시장 이불집에서 께매던 이불과는 차원이 달랐다. 구술자는 혈연지연을 동원하여 어렵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사동 이불점, 즉 ‘현대침구’에서 물건을 납품받게 된다. 당시 대학에서 월급을 받고 있던 남편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으나 ‘이불이 예뻐서’, ‘하고 싶어서’ 이불가게를 인수한 B구술자는, 소위 대박을 친다. 당시의 성공에 대해 B구술자는 ‘전주에서 밥술 좀 먹고 산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와서 샀'다고 슬회했다.

장사를 시작하고 2년 후 구술자는 '선생을 한 사람으로서' 이불에 좋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직접 이불 제작을 시작한다. 먼저 좋은 솜을 구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좋은 원단을 찾아 염색을 의뢰했다. 그 과정에서 염색에 빠진 구술자는 자연스럽게 한복 제작에 까지 사업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구술자는 대학교재, 외국 잡지 등을 구매하여 연구했을 뿐 아니라 대가들의 한복을 구매하고 해체해보는 방법 등을 써서 전통한복 제작 방식을 섭렵했다. B구술자는 필요한 경우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구술자의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자본은 성공적인 가게 운영의 주요한 바탕이 된다.

B구술자는 교직과 자영업이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구술자에게 교사와 자영업자라는 직업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물었다.

(교직과 사업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교육이잖아요. 선생님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예절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속치마 입는 법, 한복 입는 법, 우리 예절 교육 그걸 시킨다는 건, 교육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하나의 전통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일맥상통한다고 봐요.¹⁵⁾

교사와 자영업은 전혀 다른 업종이지만, 구술자에게는 전통의 전승이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B구술자에게는 두 일이 업/직종과 무관하게 가치를 전하는 일인 것이다. B구술자의 이러한 의식은 구술 전반에 드러난다. 구술자는 때로 한복을 볼 때 '이 좋은 것을 전달한다는 거, 나 아니

15) B 구술자, 3차 인터뷰, 2020. 7. 29.

면 누가 해?’라고 생각하거나, ‘나라도 이걸 지켜야지 않냐’고 말한다. 곧 B 구술자가 제작하는 한복과 이불은 ‘선생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신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담고 있는 것이다.

B구술자의 이러한 인식은 가게이름의 역사에도 잘 드러난다. 가게의 첫 번째 이름인 ‘현대침구’는 구술자가 본 예쁜 이불, 인사동 이불, 대한민국 최고급이불의 이름이다. 이후 구술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레벨’에 걸맞은 이불과 한복을 직접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이○○(B의 이름)한복(현대침구)’라는 이름의 간판을 새로 단다.¹⁶⁾ 구술자가 기존의 상호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인 것은 구술자의 신념과 자부심, 사명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구술자 C: 자녀의 이름

1958년생인 C구술자는 초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방립방직’에 취직한다. 산업체 부설 중학교 과정에 진학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업 과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구술자는 곧장 결혼하여 2남1녀를 출산한다. 이후 채소 행사, 분식점 운영, 문구점 운영, 식당 찬모, 방문 판매원, 보험 설계사, 이외에도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 후 구술자는 경제 활동을 중단한다. 배운 것도 없었지만, 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환경은 구술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게다가 결혼 전 타지에서의 공장 생활에 지쳐 ‘일 하지 않기 위해 한 결혼’이라는 생각도 있었다. 구술자는 (공무원이라던) 남편의 급여가 얼마인지 빛이 얼마인지 몰랐으나, 첫아이를 낳고도 병원비를 지불

16) 현대침구였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한복 염색에 반해가지고 한복을 시작하면서 이○○ 한복 팔호 현대침구 그렇게 했죠.(B 구술자, 2차 인터뷰, 2020. 7. 15.)

하지 못해 퇴원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구술자는 다시 일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구술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은 결혼 8년 후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이다.

큰 애를 초등학교 졸, 입학을 시켜놓고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씩 애들 아빠는 화투를 치더라고. 그거를 내가 가장 못 견뎠죠. 애들 아빠는 그게 피난처였는지, 좋아해요, 놀이를. 그걸 그렇게 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결심을 한 게 ‘이런 아빠 밑에서 사는 거보다 내가 혼자서 건전하게 키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 나가겠다.” 그리고 인제 도망친 거죠. 애들 셋(3)을 데리고. (중략) “당신하고 이제 안 살 거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한 번도 애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생각은 안했어요. 그때가 내가 스물한(21) 살에 결혼해서 삼십(30)도 채 안 됐을 나이거든요. 그냥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은데.¹⁷⁾

8년 동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구술자가 남편과 집을 떠나 타지로 이사하고, 무슨 일이든 할 결심을 한 것은, 찢어지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놀음을 하는) 남편 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C구술자는 당시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두 아이와 종일 함께 있어야 했고, 이른 학교 후 첫 아이가 있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친정에서 돈을 빌려 가겟방이 딸린 분식점을 시작했다. C구술자가 채소 행상, 분식점으로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이 일이 아이들을 옆에 둘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수입이 적더라도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7) C 구술자, 1차 인터뷰, 2020. 7. 21.

이때 C구술자는 큰 딸의 이름을 따서 ‘민이 분식’이라고 가게 이름을 짓는다. 구술자는 이 상호에 미니 분식, 즉 작은 분식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낸 것을 설명하며 뿌듯해하기도 했다. C구술자는 이 가게를 불과 6개월 남짓 운영하다가 여러 어려움에 부딪쳐 폐업한다. 이때의 폐업 결정은 두 차례의 면담, 3시간 20여 분의 구술에서 몇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C구술자에게 후회로 남았다.

이후 ‘어찌어찌 알게 된’ 문구점을 삼 년 이상 운영하기도 하는데, 구술자는 면담을 마칠 때까지 문구점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민이분식’을 인수하고 개업할 당시 구술자에게는 자녀의 양육 환경이 생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였으며, 이러한 구술자의 태도는 ‘민이분식’이라는 상호에 담겨 있다.

3) 구술자 A, D: 가치/의미 부여

다음의 두 구술자는 가게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게의 이미지, 일의 가치 또는 의미를 상호에 담고자 했다. 구술자 D는 10대 시절 공장에 취직하여 산업체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관광안내원으로 일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1984년부터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구술자는 자신의 미용실을 개업하기 전, 미용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미 미용실의 이름을 지어둔다.

저를 그 친구가 유일하게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커피숍도 데리고 가고. 근데 처음으로 데리고 간 데가 전주에 ‘바다 레스토랑’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보다 보니까 세상에 막 이렇게 일층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층으로 이렇게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막 상들리에 막 해 갖고 너무나 막 거창하게. 또 바다라는 그게 너무나 막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라는 그 상호하고 그 안에 하고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개업을 하면 바다미용실이라고 해야겠구나.’¹⁸⁾

D구술자는 이십대 초, 음식점 미용실에서 숙식하면서 미용 교육을 받았다. 당시 만났던 한 친구는 구술자를 처음으로 ‘레스토랑이라는 데’에 데려가는데, 그 곳이 전주에 있던 ‘바다레스토랑’이다. 구술자는 그 레스토랑을 ‘세상에 막 이렇게 일층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이층으로 이렇게 있고 막 그런 데’, ‘이렇게 세상에 막 샴들리에 막 해 갖고 너무나 막 거창’한 곳으로 묘사하면서 ‘바다’라는 상호와 그 안이 너무나 딱 맞았다고 회상한다. 바다레스토랑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무척 넓고 속이 시원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구술자는 그때 바로 ‘나도 나중에 개업을 하면 바다미용실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1990년 바다미용실을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D구술자는 음식점 미용실에서 일하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시 매일이 노는 것 같았다고 했다. 당시의 일터였던 미용실이 D구술자에게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친구가 데려간 ‘너무나 막 좋았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가게 이름을 결정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미용실이 없으며, 미용사와 상호가 어울린다는 손님들의 말을 전하는 D구술자에게서 가게와 상호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구술자에게 일의 의미를 묻자, 구술자는 결혼 전의 묵은 이야기를 꺼냈다. 결혼 전 구술자는 두세 차례의 선을 보았고, 결혼을 생각한 남성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와 결혼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남자 측에서 미용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¹⁹⁾ 그만큼 구술자는 미용

18) D 구술자, 2차 인터뷰, 2020. 10. 18.

19) 미용은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은, 살림만 해야한다. 그래서 탄 거를 다 떠나서 미용을 못하게 해서 나는 그녀가 결정적으로 저가 거기를 그만둔, 딱 미련없이 딱 끊은 이유야. 제가 진짜로 끊은 이유는 미용을 못하게 해서 끊었거든요, 제가. 저는 미용을 제가 끝까지 해야한다, 미용을 진짜 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용을 못하게 하니깐 그쪽을 딱, 그냥 미련 없이. 그래갖고 이쪽을 택하게 된 것이 그 정도로 이 미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자부심을 좀 가졌다고 할까요?(D 구술자, 3차 인터뷰, 2020. 11. 10.)

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용을 처음 시작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동일 업종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또 다른 A구술자는 개업을 준비하면서 철학관에 들러 가게 이름을 지었다. 현재 구술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이름은 ‘가연헤어샵’이다. 아름다운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를 상호에 담았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 덕분에 ‘아름다운 사람들만 오시는’ 곳이 되었다²⁰⁾고 평가했다.

여기에서 소개한 구술자 A와 D는 과거의 좋은 경험에서 차용하여 가게 이름을 짓거나, 작명소를 이용하여 상호에 의미를 담기도 한다. 이들이 다른 구술자들과 다른 점은, 미용사로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실습하고, 자본을 모아 개업하기까지 다른 구술자들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게를 개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일과 가게의 의미를 찾고 있었고, 개업하면서 이를 상호에 담았다. 또한 개업 이후에는 상호와 자신, 상호와 가게의 이미지를 동일시하는 데 이른다.

4) 구술자 E: 이전 상호 승계

E구술자는 중학교 졸업 후 원하던 양장점에 취직했으나 채 6개월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뒤 언니를 따라 무등양말에 취직한다. 결혼 후 퇴사하여 남편과 함께 슈퍼, 노래방 등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하고 있다.

결혼 후 공장을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 살림을 살던 E구술자는 2년 여 만에 분가하여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특별한 직업이랄 게 없었던

20) 여기 올 때는 ‘가연’이라고 한 것은 철학관에 작명소에서 지었어요. 아름다운 ‘가(佳) 자에 끌어들일 ‘연(連)’ 자 해서 ‘아름다운 사람만 끌어들인다.’ 그런 의미인데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A 구술자, 1차 인터뷰, 2020. 2. 7.)

남편에게 시댁식구들이 장사 밑천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작고 열악한 가겟방이 딸린 슈퍼를 인수한 것이다. ‘구멍가게라도 보고 있으라’는 남편의 말에 구술자는 새벽부터 자정이 넘도록 하루 18시간 이상 슈퍼를 지켰다. 첫 번째 슈퍼는 삼사 년 운영했으나, 남편이 오히려 돈을 까먹고 빚만 졌기 때문에 폐업한다. 놀 수 없기 때문에 구술자는 다시 무등양말에 취직했고, 남편은 택시를 운전하며 일 년여를 보낸다.

두 번째 가게는 월산동 유흥가를 낀 슈퍼였다. 이 가게 또한 시댁 식구들이 ‘슈퍼라도 하라’며 빌려준 돈으로 시작했다. 구술자와 남편은 이 가게에서 15년 간 열심히 일하며 빚도 갚고, 집과 가게도 분리할 수 있었으나, 대형마트의 등장과 월산동 에이즈 사건의 영향으로 점차 운영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투자 실패와 남편의 빚이 드러나면서 구술자는 핫김에 술을 배운다.

이때 만난 친구들이 노래방 인수를 권한 것이 구술자가 운영한 세 번째 가게의 시작이다. 구술자는 당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신용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해준다’는 문자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다 들어서 노래방을 정비하고 5년 간 운영했으나, 위험한 사건²¹⁾을 겪은 후 구술자는 노래방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 그때 이전에 알던 ‘까다롭고 멋쟁이’ 친구가 간병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노래방을 그만둔다.

21)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카운터 옆에 방이 조그마한 노래방이 있어요. 인자 주로 거기서 내가 많이 기거를 해요 인자. 그거를 손님 안주고. 그런데 인자 한번은 이렇게, 어떤 학생이예요. 학생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인자. 노래방이 지하라 쪽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비상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들어오자마자 계속 뭐, 인자 나는 졸졸 따라갔잖아요? 놓고 있는데 누구 찾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졸졸 따라갔는데 비상문을 딱 여는 거야. 아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달려들어갔고 [자신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시늉을 하며]목을 갖다가, 그 계단 있는 데에서 목을 갖다가 딱 누르는 거야. 그래갖고는 인자 내가 우리 아저씨도 그때 방에가 마침 있었어요. 그 방에가. 내가 악을 꺾, 꺾 썼는데 이 학생들의 노랫소리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갖고 인자 악을 꺾 꺾 쓰니까 달려나왔어요. (중략) 그렇게 막 씨름씨름하다가 애가 도망가버렸어 인자. 그 뒤로는 이 노래방이 정이 떨어져 버린 거야. 혼자 있기가 무서워가지고.(E 구술자, 2차 인터뷰, 2021. 1. 21.)

E구술자는 결혼 직후 두 자녀를 출산한 2년을 제외하고는 10대부터 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면담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E구술자에게 그간의 경제 활동의 의미를 묻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또 해야만 되니까 한 거지. 왜냐면 다른 사람 같이 신랑이 봉급을 나한테 넉넉히 갖다 줘가지고 이것 가지고 생활을 해라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뭐 그런 것을 안 하고 할 건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잡화를 할테니까 자기는 이것을 구멍가게라도 보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야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또 요렇게 하다보니까 또 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도 해야 되고.²²⁾

간판을 할라고 생각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니까 간판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름 그대로. ‘화순슈퍼’, ‘돼지슈퍼’, ‘풀피리 노래방’²³⁾

구술자는 ‘신랑의 봉급이 넉넉하지 않아서, 해야만 되니까, 남편이 그렇다니까 그래야 되는가보다 하고’ 이십 년 이상 쉽 없이 가게를 운영해왔다. 구술 과정에서 돌아보니 자신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있을까 싶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람이 살았다 할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며 우울해했다.

구술자가 운영한 세 가게는 이름이 제각각이다. 화순슈퍼, 돼지슈퍼, 풀피리노래방이 그것이다. 구술자는 간판을 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전 주인이 쓰던 간판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게 이름을 이어 받아 썼다. 두 번째 슈퍼를 운영할 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게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노래방의 경우, 개업 전 추가로 빔을 내어 시설을 싹 뜯어 고치면서

22) E 구술자, 2차 인터뷰, 2021. 1. 21.

23) E 구술자, 같은 자료.

도 구술자는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이를 보면 구술자에게 가게의 이름을 짓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상호에 대한 이러한 구술자의 태도는 '남은 것이 없다'는 구술자의 경제 생활에 대한 회고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또 다른 구술자 F의 회고는 E구술자와 닮아 있다. F구술자는 열여덟에 상경하여 미용 기술을 배웠고,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6~7년 간 미용일을 한다. F구술자는 출산 후 미용을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따라 중국집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구술자가 미용을 그만 둔 이유는 미용실을 하는 여성들의 남편, 돈을 버는 여성들의 남편 중에 노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구술자에게 남편과 함께 중국집을 처음 개업하던 때의 소감을 묻자,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한 것이지.'라고 답한다.

F구술자가 운영한 중국집의 이름은 ○○반점, △△각이다. 구술자는 가게를 이동하고,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전 주인이 그 자리에서 사용하던 상호를 승계하여 썼다.

4. 맺음말

이 글은 호남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한 여성의 구술에서 가게 상호의 명명 방식에 주목하였다. '여성 자영업자'는 사회적 지위나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지닌 여성들이 분포해 있다. 따라서 여성 자영업자의 상호 명명 방식을 고찰하는 방식은 단순한 '이름짓기'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여성이 자신이 꾸려나가고 있는 가게(사업체)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른 구술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노동 이력을 가진 여성들이며, 이들의 경제 활동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가족,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여성 자영업의 경우 여성 스스로가 중심이기보다 남편 또는 자녀를 중심에 두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지, 살림집이 있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지가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선택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구술을 통해 여성 자영업자의 자기 정체성, 직업의식을 살피는 일은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다른 여섯 명의 구술자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상호에 자신이나 자녀의 이름을 붙이거나, 가게 또는 일에 대한 가치를 담기도 하고, 이전 주인이 쓰던 상호를 물려 쓰기도 했다. 각 구술자의 상호 명명 방식은 구술자가 자신의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이는 나아가 '창업 당시 자본이 얼마나 있었는가, 직업 훈련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술자들의 직업 의식이 창업 자본, 사전 직업 훈련 유무 및 기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은, 창업자본 지원 시 사전 직업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근현대 한국 주변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주제로 한 구술 조사는 2단계에 진입하여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영남지역의 여성 자영업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미비한 점이 있으나, 이 논문이 여성 자영업자 조사에 대한 1차 갈무리이면서 2단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2단계 영남지역, 3단계 수도권 조사를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추후 여성 자영업의 면면을 다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근현대 한국 주변부 여성의 경제 활동〉 1단계(2019.06.~2022.05.) 호남지역 구술 조사 자료

○○경 구술, 3차 인터뷰, 2019. 11. 14.

○○희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19.

박○○ 구술, 2차 인터뷰, 2020. 2. 24.

김○○ 구술, 4차 인터뷰, 2020. 1. 15.

김○○ 구술, 5차 인터뷰, 2020. 2. 26.

A 구술자, 1차 인터뷰, 2020. 2. 7.

B 구술자, 2차 인터뷰, 2020. 7. 15.

B 구술자, 3차 인터뷰, 2020. 7. 29.

C 구술자, 1차 인터뷰, 2020. 7. 21.

D 구술자, 2차 인터뷰, 2020. 10. 18.

D 구술자, 3차 인터뷰, 2020. 11. 10.

E 구술자, 2차 인터뷰, 2021. 1. 21.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2002.

김재준, 김용현, 「상호와 소기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강남구와 종로구의 점포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연구』 16(1), 2009.

김문정,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 수기와 그녀들의 ‘이름 찾기」, 『한국학연구』 49, 2018.

김미선, 「한국전쟁 이후 ‘여성의 경제 (Female Economy)’의 형성: 양장점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8(1), 2022.

김선규, 「지책의 알튀세르 ‘호명 이론’ 다시 읽기」, 『현대사상』, 2020.

신경아,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인식」, 『젠더와 문화』 6(2), 2013.

윤택림, 「여성은 스스로 말 할 수 있는가: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적 논의」, 『여성학논집』 27(2), 2010.

윤택림, 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이월영, 「침묵과 부재: 여성과 언어의 악인연」, 『국어문학』 34, 1999.

주창윤, 「젠더 호명과 경계 짓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

최나현, 「‘자기만의 방’을 만드는 사람들-청년여성 자영업자의 일 경험과 의미 연구」, 『여성학연구』 30(1), 2020.

| Abstract |

Self-employed Women's Identity Realization and Business Naming Method

Bae, A-Young

This article examines the self-awareness and job identity of female self-employed people through the oral life history of women who are self-employ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Honam, and reveals that it is connected to their mutual name. In the case of female self-employed businesses, they show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putting their husbands or children at the center of their work rather than themselves.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difficult and necessary to examine the job identity of female self-employed people.

The oral speakers covered in this article attached their or children's names to the trade names, contained the value of the store or work, and inherited the trade names used by their previous owners. Each oral person's mutual naming method was related to the degree to which the oral person revealed his or her job identity, which was further closely related to start-up capital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vocational training (period). This article will be a methodology that three-dimensionally reveals the life oral statements of self-employed women who have been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s subjects in the periphery of our society.

Key Words: Periphery, Female, Occupational Identity, Business Name,
Oral Life History

· 논문투고일: 2023년 9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3년 10월 17일 · 게재결정일: 2023년 10월 27일